

캄보디아에는 두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캄보디아 전통 설날이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추석명절과 비슷한 프춤번이라는 명절입니다. 올해는 이번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이 명절을 지키는데 프놈펜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우리의 명절과 똑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이 기간 동안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원에 가는 것이 이 프춤번명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원 앞에서 남녀노소 모두 쌀과 돈을 가지고 나와 줄지어 공양하는 모습들...>

저희 어린이센터와 청소년센터의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한 이 명절을 맞아 시골에 부모님이나 친지라도 있는 아이들은 기대감으로 고향을 찾고 고향이 없는 아이들 대부분은 조금은 쓸쓸히 보통 때와는 크게 느껴지는 센터에서 무료로 보내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16절

기도제목: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죽은 자에게 절하는,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곳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찬송의 제사가 들려지길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 힘들어 하지 않으며 즐겁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HIS 어린이센터 (Children's Centre)

타에 타이타(남9세)와 타에 스라이나(여5세) 남매가 거리의 안식처를 통하여 저희 어린이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60여 명의 아이들은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모두들 들떠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청소년센터로 옮긴 아이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첫걸음을 조심스레 내딛는 파리, 보, 쏘니. 한 학년씩 올라가 새 학기를 맞음과 동시에 프춤번 명절을 맞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10월 한 달을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게 잘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새롭게 들어온 남매가 어린이센터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파리는 유치원 교사로 보는 일일공부방 교사와 마을 전도자로 쏘니는 기술학교에서 학생으로 일년간 일하게 되는데, 이들이 잘 적응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맡은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어린이센터에서 일하는 현지인 스텝들이 서로 잘 이해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드디어 어린이센터 외벽, 정문, 주차장과 경비실이 완공되었습니다. 감사! 감사!



HIS 청소년 센터 (Youth Centre) & 다니엘 홈 (Daniel Home)

지난 9월 네 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이번 달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남학생들입니다. 한편 지난 3개월간의 긴 방학동안 청소년센터의 모든 학생들은 부족한 공부들을 보충하며 새 학기를 열심히 준비하였답니다.



<새로 청소년센터에 들어온 네 명의 학생들>

세 명의 남학생들이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들 중 로왓타와 꺄난은 지난 9월 프놈펜의 한 대학의 전기엔지니어과에 입학하였고 번은 청소년센터를 나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전한 다니엘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학생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해주는 모습.>

한편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학사인 다니엘 홈이 새로운 집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네 명의 학생들이 그리스도안에서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청소년센터에 새로 들어 온 네 명의 학생들이 잘 적응하기를

16명의 청소년센터 학생들과 네 명의 다니엘 홈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며 비전들을 키워갈 수 있기를 중학교를 마친 꺄남이 현재 일을 하면서 내년에 한 직업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진로를 인도하시기를 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기를

HIS 일일 공부방 (Day Care)

일일공부방도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60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 책들과 연필, 공책들을 받으며 신나 합니다. 4살부터 17살까지, 장난꾸러기 꼬마부터 새침데기여학생들까지, 동생을 안고 가방을 메고 온 여자아이들.. 이들 안에 꿈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9월부터 새롭게 온 두 명의 선생과 기존의 두 선생 그리고 네덜란드와 호주에서 온 세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품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네 명의 교사들과 세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과 함께하기를 어려운 학습환경(다양한 나이, 열린 교실 등) 속에서 선생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기를 60여 명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위에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HIS 움직이는 안식처 (Mobile-Drop In Centre)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안식처인 버스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에어컨의 잦은 고장 때문에 버스 안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모두 땀 범벅이 되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감사한 일, 버스엔진에 문제가 생길 때면 사역자들은 사역에 필요한 짐을 싸서 작은 봉고를 끌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거나 종종 아이들 사역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다섯 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

현지인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잦은 버스 고장으로 인한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프춤번 명절 이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기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화요일 늦은 밤 프놈펜 중앙시장 앞..>

HIS 돌로스교회 & 마을 전도 (Doulos Church & Village Outreach)

돌로스교회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행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아 현재 네 곳의 마을 소그룹 사람들이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요 절기들을 맞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리고 그 분께만 홀로 영광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돌로스교회 주일학교는 매 주일 약 250여 명의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말씀을 공부하는 블랙 캄뿌리어 지역의 한 소그룹>

<12월 완공 예정인 블랙 캄뿌리어 예배당 건축 모습>



기도제목: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 위에 신앙이 자라가기를
교회 사역자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11월 추수감사절 때 세례를 받을 자들이 말씀 공부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알아가며 그들의 삶 속에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블랙 캄뿌리어 지역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HIS 유치원 (Kindergartens)

두 곳의 유치원에서 새로운 원생들을 모집하여 새 학기를 시작하였으며, 교사들간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8명의 교사들이 한 선교단체에서 실시한 3박4일 간의 유치원교사수련회에 참석하여 귀한 훈련과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제목:

새로 모집된 원생들과 인사 이동된 교사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돌로스교회 부속유치원에 5명 정도의 원생이 더 모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시기를
쁘레호 유치원에 한 명의 파트타임교사가 필요함. 좋은 교사를 보내주시기를
새롭게 교사로 섬기는 파리가 잘 적응하고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기를

HIS 문화센터 (Community Centre)

지난 긴 3개월의 방학 동안 기존의 많은 학생들이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새롭게 개설한 초급 한국어교실과 세 개의 컴퓨터교실은 뻥뻥하게 찬 학생들로 교실이 북적이었습니다. 명절과 축제 등으로 유난히 공휴일이 많은 10월에 각 교실마다 결석이 많은 학생들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런 기간을 통해 각 교실의 선생들이 학생들의 문화와 삶을 좀더 알아가며, 친밀감을 가지고 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

한국어를 전담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자원봉사자 최유리선생이 내년 1월이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됨.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보내주시도록
영어교실의 Koh 선생이 현지 실정에 맞는 영어교재를 만들고 있음. 그 과정에 건강과 지혜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 센터가 될 수 있기를